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 법공양 페이지

## “나무 제뿌리 믿어야 공덕 있듯이...”

### 15면에서 계속

다. 그러나 보이는 당신은 현실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보이지 않는 당신에게 말하고 심부름만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 기계가 고장도 안나고 회사도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들의 시봉자가 돼야만 하겠죠.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본래 시봉자죠. 항상 내가 했다는 게 있고 내가 내세울 게 있고 내가 한다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용납을 안하십니다.

마음은 내가 없어서 이 세상 허공을 다 한데 합쳐도 하나도 없는 것일뿐입니다. 하나도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있는 것이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이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가 아닌 데서 부처

여러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이 열리지 않아 모를 뿐이지 지금도 부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찾으려면 문이 없는 문을 찾아야지, 문이 있는 문을 찾는다면 백날을 찾아도 그 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수에 입력이 돼 있고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입력이 돼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혼하를 팔자운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차례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현 물음 새 물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게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걸 입력하면 과거의 것이 없어지고 새로 입력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녹음 테이프에 새로운 걸 입력하



그림 · 최주현

### “악연 선연 자기가 지어 만들고 행복도 자기가 만들어 사는것 누가 내것 만들어 주는게 아니죠”

가 있는 것이지, 부처라고 내세운다면 그건 이미 부처가 아니죠.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아시겠지만 돈도 생명이 있고 곱 하나도 생명이 있고 모든 일체 만물만 생겨서는 다 생명이 있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을 하는 것도 한마디 한마디 하는 대로 연방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말이라는 것은 말로 떨어져서는 부처님께서도 용납 안하시지만 진리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과 뜻과 행이 똑같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 진실한 말이야 공명의 수레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닥치죠. 모두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인과성 업보성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 대처를 하시렵니까. 그래도 할나할나 공해서 돌아가는 걸 아시는 분들은 좀 낫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집안의 우환이나 병고역난을 막기 위해서만은 아니죠. 세계 생생 생사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업을 짓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인연까지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연은 짓되 착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로 업을 짓지 않아야 파보를 받지 않으며 셋째 파보를 받지 않아야 윤회에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윤회에 말리지 않아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는 것과 관하는 것은 다르다. 기도하는 것은 타위에 놓고 돌로 보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관하는 것은 자의에, 바로 직접 하나로 보고 닦쳐오는 대로 맛을 보고 자기 종자를 알 수 있게끔 바로 자기에게 놓는 것이다”라고요. 생사에서 벗어나는 첫째가 업을 짓지 않는 것이라면 업을 짓지 않는 첫째는 바로 내 안에 돌로 놓고 관하는 것입니다. 그게 관(觀)입니다.

관하게 되면 바로 내로 통합니다.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사대로 통신이 되면 그 몸 속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자기 소임 맡은 곳에 작용을 해 줍니다. 이것은 심성과학일 수도 있고 심성의학일 수도 있고 심성천체물리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력한데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무시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뿌리를 못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할나할나 닦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해결을 하고 마음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몸으로나 말로나 윤력으로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관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 대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정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수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정수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부처님 정수에서는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생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담당하시고 언제나 평등공평으로써

면 앞의 것이 지워지고 새로 녹음한 것이 남아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끊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가 관하고 놓으리구요. 예전의 공부하던 분들은 ‘이렇고’ 하고 화두를 들고 계셨지만 이전 이미 그 높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들어가야죠. 일거수 일투족이 다 거기서 그 높이를 하는 거니까 놓고 가시라 이겁니다. 그것을 ‘자발’이라고 그러죠. 내 자발을 모르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을 어떻게 알며 일체 만중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관하면 새로운 것이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레와 같이 돌아가는 그 뜻에서는 팔자운명도 없고, 병 불을 자라도 없고, 잘못됐다 잘못됐다 불을 자라도 없고, 억울한 점이 불을 자라도 없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인과성이나 세균성이나 업보성이나 하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이게 엄청난 공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짓는 것도 없고 선을 짓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마음이 고정돼 있어서 선으로만 간다면 악이 생

라도 ‘나도 저렇게 못한 모습으로 살았었겠지’라는 생각으로 돌로 보지 마십시오. 공부를 하다보면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부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계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로 하리까. 진짜로 안다면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면서도 천리를 마다 안하고 한생각에 한할나에 뛰시는구나. 우리도 만약 부처님 마음과 같이 아니라면 한할나에 미국도 뛰고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우주 삼천대천세계도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정녕코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고 부와 자가 상봉하면서 자기의 일체 의식들을 조복받으 내 몸이라는 집은, 이 시자는 바로 내

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항상 걸리고 그러는데 좀 대담하게 걸림없이 공부를 하시려면 부처도 돌로 봐선 안됩니다. 법당에 부처님을 만 분을 모셔왔다 하더라도 그 만 분이 바로 일불입니다. 일불을 아시려면 일불도 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일불조차 공해서 모든 사실을 아시려면 바로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나하고 다르지 않게, 즉 위로 봐도 안되고 아래로 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정녕코 자기를 자기가 발견하고 부와 자가 상봉하면서 자기의 일체 의식들을 조복받으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나 우주

## “결과 바라지 말고 자기부처 시봉 잘하세요”

## “自佛 모르고 일체 제불 마음 어떻게 아나”

기교 약오르만 간다면 또 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해도 양면을 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나할나 놓아버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자발, 즉 불성이 본래 있다고 믿어와야 합니다. 영원한 자기의 근본인 불성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가지도 못해요. 아야 송장이 될 겁니다. 자기의 뿌리, 자발만이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조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자라 생각하고 거기가 놓을 때 비로소 안에 있는 의식들이 한마음으로 따라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생각이면 그 의식들도 다 한생각으로 따라주니까 그게 조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가 놓게 되면 깨우쳤는지 못 깨우쳤는지 그걸 떠나서 벌써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가정이 유쾌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자꾸 돌로 보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인간까지 오면서 무엇인들 안 돼왔겠습니까? 별래를 한 마리 보더라도 벌레라고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모습일 때가 있었겠지.’ 또 아무리 못한 사람이 있

의식들의 집합소라고 해도 됩니다. 자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정자 난자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모습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자 난자를 받아서 자기 영혼과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형성을 시킵니다.

그럼 법의 부모는 어떤 것이냐.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참 자기죠. 그러니 보이는 데 형성해 놓은 자기 몸은 자기 자신이 나 같죠. 그러나 그 육을 길러주는 부모가 또 있습니다. 육을 길러준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부모도 돌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근본처에 한자리를 하게 되죠.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식도 형제도 모두가 그러합니다.

로 자기 자발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는다면 이 몸이 있는 것 자체가 그대로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 깊은 속에 바로 내 자성이 있지’하고 그 자성이 있는 줄 안다면 무조건 거기가 관하고 거기가 놓고 생활하십시오. 일거수 일투족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다보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한 줄을 알게 되고, 본래 갖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고, 일체 만물을 들이고 깨도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할나할나 나누면서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있다

삼천대천세계를 그대로 여여하게 볼 것이며 여여하게 대처할 것이며 여여하게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고정된 게 없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어디 하나 고정된 게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것 먹었을 때, 어떤 것 했을 때, 어떤 것 말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까닭에 나 자체도 공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이치를 아신다면 부모가 잘못되거나 자식이 잘못되어도 한할나 한생각에 녹아질 수 있는 묘법을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몇 해씩 앉아서 자식을 고생시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이 아파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하고 고생을 시키기도 하죠. 비록 몇 억걸 전의 유전성이나 업보성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할나 밖엔 안됩니다. 지금 한생각이면, 즉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한데 합쳐지니까 그게 삼천년 전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삼천년 후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싸와 없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말입

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야단을 치는 것보다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 고치려고 마음을 쓴다면 육체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때리고 야단치고 심지어는 “요, 잘못을 할 놈! 배울 때 배우지 않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정말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이 진리 속에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법인지 잘 새겨야 합니다.

마음 쓰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 안 내고 쓰는 마음이라고 함부로 쓰거든요. 화가 난다고 툭툭거리면서 함부로 말을 해대지요. 한번 마음의 용광로에서 거르지도 않고 말입니다. 안보이는 말이라고 해서 해버리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업이 되고 유전이 되고 누적이 돼서 현실로 자꾸 나오게 되니 한 생각이 모든 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잘 써야 되겠죠?

이 세상에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면 잘 낫든 못낫든 한할나 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되고 해서 해버리고 나면 없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업이 되고 유전이 되고 누적이 돼서 현실로 자꾸 나오게 되니 한 생각이 모든 업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잘 써야 되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아줄 것이로 되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주리라”하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정신계는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고 빈 집이 되니 그것은 주인이 없는 집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주장자를 뺏아줄 것이라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신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어떤 것이 닦쳐와도 대처를 하고 가야 될텐데 집이 비었으니 무슨 대처를 합니까. 대처를 할 수도 없거니와 어떤

가야 합니까? 정말이지 어떤때는 눈물 날때가 많습디다. 축은하고 불쌍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내가 대신 밥을 먹어서 여러분의 배가 부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내가 대신 밥을 먹어줘도 여러분은 배고픔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밥을 제가 먹어야 배가 부르지, 남이 대신 죽어 줄 수도 없고, 아파 줄 수도 없고, 풍뉘 줄 수도 없고, 밥먹어 줄 수도 없고, 잡자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깨우쳐 줄 수는 더욱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자녀들한테도 ‘너의 몸은 나무와 같아. 나무는 뿌리로 인해서 살지? 그러니 뿌리가 없으면 죽을 거야. 네 뿌리를 진짜로 믿고 중심을 안으로 세워서 살아야 해.’하고 일러 주십시오. 그것은 방편이면서도 마음을 일깨워주는 공부입니다. 그게 바로 평생의 양식이 될 겁니다. ‘그 뿌리에서만 이 네가 아프면 난게 해 줄 수 있고 너를 지켜줄 수 있고 너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으니 너의 뿌리인 너의 불성을 믿어라.’ 하든지 ‘주인공을 믿어라.’ 하든지 ‘자부처를 믿어라.’ 하든지 어떤 것이든 좋습디다. 부처님이 계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그 진리를 참구해서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몸이 크다 하는 것은 한생각에 할나할나 움직여가는 사이없이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지금도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수레바퀴 둘둘이 돌아가기 때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로 그걸 아시려면 오직 보이지 않는 자기 속에 참자가 불종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걸 화두로 삼으세요. 화두라는 것이란 사람한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생겨난 자체가 이미 화두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해 볼 때 ‘아하, 네 놀이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았다면 그냥 제능한데다 무조건 놓는 거예요.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주시고’가 아닙니다.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어. 안 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 내가 알아서 죽으면 살리든 해.’ 하고 과감하게 놓는 거예요. 살피는 것이란 부처님 법도 아니고 못되는 것만이 부처님 법도 아닙니다. 양면을 다 놓고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스러운 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여러분이 경전을 본다 하더라도 글자를 배워서 익히려고 경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글자를 읽을 때도 글자를 보지 말고 그 뜻을 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책이 여러분을 보지 않게 해야 하고, 여러분이 책을 보지 않게 볼 수 있어야만 그걸 진짜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 따라서 ‘법문(法門)’ 이라는 데 문이 있는 것이 법문이 아닙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법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佛法)’ 하죠? 불법은 불법이 없다는 것에도 속합니다. 너무나 할나할나 화해서 나투는 까닭에 불법은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없는 데 문이 있는 데를 찾아다니셨습니까? 당장 지금 죽어가는 데 벽이라도 뚫고 들어가 아지 언제 문을 찾았습니까? 그래서 문이 없는 문을 알아야지 문을 그렇게 찾아다니시면 공부 못해요.

부처님도 돌로 보지 마세요. 부처님 마음이 여러 보살의 이름으로 탄생을 했지만 그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부처님의 마음 즉 한마음 속에서 전부 나왔다고 이겁니다. 그러니 진짜 대대로 배우고 가신다면 부처님이나 스님들을 볼 때 너무나 성스럽고 위대하게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도리를 모르면 ‘홍, 그냥 만들어 놓은 부처인데 뭐.’ 이리시겠지만 완전히 터득을 하신다면 하다못해 돌 하나 세워놓은 것도 살아서 움직여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미 과거로 돌아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은 물같이 살라 하고 산은 산같이 살라 합니다. 보십시오. 불이 되니 싸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봄을 기다리며 나무는 인내하며 놓고 갑니다. 나무도 그러하네 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뜻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상대를 돌로 보지 마시고 높게도 보지 마시고 낮게도 보지 마시고, 일체를 그 자리에 놓아 경등하게 보십시오. 그래야만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 합친 주인공